

의안번호	제 291호
의 결 년 월 일	2000년 5월 25일 (제 173 회)

##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건의문(안)

제 안 자	관광건설위원장
제안년월일	2000년 5월 25일

#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건의문(안)

의안 번호	제291호
----------	-------

제안년월일 : 2000년 5월 25일

제 안 자 : 관광건설위원회

## 1. 주 문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중인 태권도 공원을 태권도와 관련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갖추고 산세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태권도 수련도장으로 적합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함은 물론 태권도공원 개발에 따른 경제성 등 여러가지 조건을 갖춘 충북지역에 태권도공원을 설치하여 줄것을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체육회장께 건의하고자 함.

## 2. 제안이유

- ① 충북지역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곳으로 역사적 인물과 사적지가 많은 곳이며
- ② 청풍명월과 충·효·예의 본고장으로 온화한 기후와 산세가 수려한 자연경관 등 태권도 기본정신인 호연지기를 연마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 ③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중부내륙권의 관문이며 동·서해권과 영·호남이 융합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은 경부·충부·동서고속도로 등과 청주국제공항, 경부선 철도, 고속철도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태권도공원의 테마·관광지화를 위한 최적지라고 사료됨.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문화관광부장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대한체육회장

##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건의문(안)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문화관광부장관님,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님, 대한체육회장님

국정에 분망하시고 체육진흥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중  
에도 항상 저희 충청북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지역현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문화관광부에서는 5천만 세계 태권도인의 구심점  
확보와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하여 태권도를  
21세기 국가 전략상품화 하는 한편,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하여 관광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고자 오는  
7월 후보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공원은 태권도와 관련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갖추고, 태권도 수련도장으로 산천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함은 물론, 태권도 공원 개발에 도민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청북도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지로서

**첫째**,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화랑의 고장으로 태권도와 관련한 역사적 인물과 사적지가 많은 태권도의 이념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며

**둘째**, 청풍명월과 충·효·예의 본 고장으로 온화한 기후와 산천이 수려한 자연경관은 태권도 기본정신인 호연지기를 연마하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내 곳곳에 많은 관광지가 산재하여 태권도공원과 지역 관광단지와의 연계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셋째,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도권과 중부내륙권의 관문이며 동·서해권과 영·호남권이 융합될 수 있는 지정학적 여건과 경부·중부·동서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경부선 철도, 고속철도 등으로 교통이 편리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이 용이한 태권도공원의 테마관광권역화를 위한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역사적 배경과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관광객 접근이 용이한 충청북도에 태권도공원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충북도민들은 온후한 성품과 후덕한 인심 속에 국가정책에 적극 호응하였으며 앞으로도 번영된 조국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굳센 의지로 결집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대단위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유치를 갈망하는 150만 도민들의 강력한 뜻을 모아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0년 5월 25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